

유로파이터 2000, 실전배치 연기

유로파이터 2000의 영국공군 실전배치가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첫 번째 유로파이터 실전배치의 우선 대체기종인 토네이도 F3의 대체시기를 발표하지 못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이 지원해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의 생산투자 단계가 지연되어 영국공군의 토네이도 F3과 재규어 GR1A/B대대의 운용기간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분담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영국과 독일의 논쟁은 독일은 조달기간 단축, 영국은 몇 개의 옵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산업적 혹은 정치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중국, Su-27 전투기 24대 추가구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신형 Su-27 전투기 24대를 추가 구매 했다고 홍콩연합보가 대북발로 대만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형 수호이기 24대는 내년에 중국에 인도되기 시작해 97년에 실전배치가 완료되며 이번의 구매로 중국은 지금까지 모두 50대의 Su-27 계열 전투기들을 사들여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중국 내 합작생산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밝혔다.

새로 구매한 수호이 전투기는 중국이 지난해 말까지 실전배치한 구형 Su-27B에 비해 전투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항공전자계통이 현대화됐고 레이더도 구형처럼 단일목표가 아니고 다목표들을 동시추적할 수 있다고 국방부 관리들은 설명했다.

중국은 신형 Su-27 생산기술도 도입해 요령성 심양비기 제조공사에서 생산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의중이라고 국방부 관리는 말했다.

중국은 또 처음으로 러시아제 공대공 미사일들도 구매했으며 레이더와 적외선으로 유도되는 AA-10 중거리 미사일 1백44기 및 적외선으로 유도되는 AA-8 단거리 미사일 96기도 구매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시아·동유럽, 국방비 증가증가

세계적인 국방예산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동유럽지역의 국방비 지출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전략연구기구(ISS)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동아시아지역은 9%의 증가를 보였으며 1995년에는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의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그밖에 한국을 비롯한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대관계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95년 국방 예산이 각각 6%, 7%씩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도의 항공기와 엔진의 구매액은 93년 7억4천만달러에서 94년 8억2천만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폴란드, 평가리, 체코공화국 등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95년 국방예산이 폴란드는 225억불에서 260억불로, 체코공화국은 9억3천불에서 10억불로, 그리고 평가리는 5억5천6백불에서 6억4천1백불로 각각 증가 되었다. 이들 국가는 구 소련에서 구매하였던

무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ISS는 또, 러시아는 94년 계획된 국방비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예상되었던 인플레이션을 보다 더 큰 화폐가치 하락과 재원의 부족으로 실제 지출은 예산의 70%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대만, F-18에 미사일 포함 희망

대만공군은 휴즈사 AIM-120 AMRAAM(Advanced medium-range air-to-air missile)을 포함한 F-18전투기 8대의 구매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미 대만정부는 4억불에 달하는 금액을 1995/6년 국방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며 만약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전투기가 아닌 Dassault나 수호이전투기와 같은 타국의 전투기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추가 장비로 이 미사일 이외에도 MDC AGM-84 Harpoon과 Raytheon AIM-9 미사일등 여러종류의 무기와 장비들이 포함되고 있다.

파키스탄, 미라주전투기 구매 희망

파키스탄이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 구매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우려한 미국이 F-16 전투기의 판매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주정부관리는 지난 10월 23일 프랑스 대통령과 40대의 미라주 전투기 구매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지난 1992년에도 미라주전투기에 대한 구매계획이 있었으나 파키스탄정부의 지불능력이 불투명해 협상이 결렬됐었다.

미, 터키 F-5개량사업 재개

그동안 지연되었던 터키의 F-5 개량사업이 미국의 투자사들의 자금참여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트라이톤 시스템은 개량사업을 추진해오던 회사들과 계약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내년 초반부터 착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개량수준은 F-16 전투기의 훈련용 정도이며 개량기종중 34기는 터키 공군이 보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계기로 F-5 업그레이드 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몇 회사

들은 트라이톤사의 낙관적인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트라이톤사의 내년 초반의 사업개시 목표가 실질적이기는 하나 미주정부로부터의 수출승인을 획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F-5 재판매의 시장성이 약하다는 점도 회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신속히 진행된다면 가격 면에서 유리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해병, 코브라헬기 대체계획 포기할 듯

미 해병은 벨사의 UH-1N 기종과 AH-1W을 대체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약 30억불을 투입하여 위 두 기종을 개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기종의 개량계획으로는 '96 회계년도까지 4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연구를 실시한후 '97회계년도에 이 두 기종의 개량형(UH-4BN, AH-4BW)의 설계를 마친다는 것이다.

또 '99회계년도에는 조종석을 개량하고 2000 - 2001회계년도 사이에 시험비행을 할 계획이다.

4BW과 4BN으로의 개량은

2002-2011회계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R&D 및 개량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 31억3천만불에 이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벨사는 UH-1과 AH-1을 시작으로 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많은 테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AH-1W기종에는 4개의 불레이드를 성공적으로 개량하여 왔다.

■ 이스라엘 공군, Beechcraft 구매 거부

이스라엘 공군은 JPATS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Beechcraft MK-2의 구매를 거부하였으며 대신 BAe의 Hawk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훈련기용으로 터보프롭 기종인 MK-2보다 제트기 종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미 Hawk 기의 비행시험을 마쳤으며 훈련 기로서의 임무에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5년간 프랑스의 Zuki훈련기(Fouga CM170의 업그레이드)를 사용한 후 2000년부터 대체될 전망이다.

■ JSOW, 첫발사 시험

동력 JSOW(Joint Stand-Off Weapon)의 발사시험은 China Lake Naval Air 무기센터에서 이루어졌다. 글라이더형인 이 무기는 작은 터보제트 엔진 1개의 추가로 약 100naut. mile을 더 비행할 수 있다. F-4에 장착되어 실험된 이 무기는 폭파전 트레모양의 비행을 11분동안 하였다.

동력 JSOW비행은 美 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과 英 CASOM(Conventionally Armed Standoff Missile)의 경쟁으로 낮은 리스크, 저가의 무기생산기술의 첫 번째 성과이다. JSOW는 F-117과 Joint Strike Fighter에는 2대, B-2에는 16대를 실을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Fokker, F60 처녀비행

쌍발 터보프롭엔진을 장착한 Fokker사의 F60이 11월 2일 암스테르담 Schiphol비행장에서 처녀비행하였다. 군수송기용으로 사용될 이 기종은 400시간의 비행시험을 거친후 1996년 3월경에 인증될 계획이다.

네덜란드 공군은 P&W사의 PW127B 터보프롭엔진 2개를 장

착한 F60 4대를 최초로 주문하였다. Fokker사는 군용외에도 60석 규모로 민간용으로 제공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 일본방위청,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현대화

일본방위청은 새로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미사일은 기술연구개발기구에 의해 개발될 예정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개발계획중 1996회계년도에 7억7210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내역은 현재 사용중인 호크미사일의 개량으로 1억9270만달러, 패트리어트미사일 구매로 2억1,000만달러,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탱크/전함 요격용 미사일 개량에 9,000만달러가 편성되었으며 그밖에 4개품목의 36대 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다.